

茶筒



現在雖然市面上大部分的茶筒（茶罐）皆為機器製作生產、但仍存有堅持經過130多道程序來完成的手工製作茶筒。將蓋子輕蓋在茶筒口便能自動滑落密合、這是僅有手工製作才可能達到精緻度。利用原材不加任何裝飾的銅製茶罐或馬口鐵製的「原材」茶筒、保留原有的樸素美感。隨著使用時間增加、還可享受材質獨特的顏色變化趣味。

製作：京都市

차통



현재 차통의 대부분이 기계생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변함없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차통은 130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뚜껑을 차통 입구에 맞추면 저절로 닫히는 정교함은 수작업만이 가지는 장점이다. 자연 그대로의 표면을 살린 도장하지 않는 동이나 양철 제품의 '기지모노'는 차통 본래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지니며, 사용하면서 소재가 지닌 독특한 색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교토시 제작

茶叶罐



与现今茶叶罐大多以机器制造相比、一贯化手工制作必须经过130多道工序才能完成。将盖子对上茶叶罐口时能自动密合、这种精密程度只有手工制作才可能实现。不上涂料的铜制或马口铁制“生地物”、有效利用了材料质地、让茶叶罐焕发出质朴的美感。在使用过程中还能享受到素材独特的颜色变化带来的乐趣。

制作：京都市

Chazutsu (Tea container)



Most *chazutsu* are machine-made these days, but a completely handmade one takes over 130 processes to produce. The precision fit that allows the cover to close by itself when placed on the container is unique to handmade *chazutsu*. Some of them are unpainted so that you can enjoy the beauty of the copper or tin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made, which is only enhanced by natural changes in coloration that occur over time.

Produced by City of Kyoto